

인구 늘고 젊어진 혁신도시...편의시설은 부족

국토부, 정주여건 통계...인구 3만3525명·편의시설 930곳 부산 인구 4.4배...편의시설 수는 40%에도 못 미쳐 공동주택 조성률 79%로 10개 혁신도시 중 세 번째로 낮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부산보다 4배 넘게 많지만 편의시설 수는 부산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성률은 79%로, 전국에서 3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가족동반 이주율·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등 정주인구 현황과 공동주택 조성 비율, 학교 개교, 어린이집 개원, 편의시설 현황 등 정주여건을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에는 16개 기관·공기업이 이전을 마쳤다. 기관 이전에 따라 유입된 임직원 수는 7714명으로, 10개 혁신도시 이전 임직원 수의 17.5%에 달한다.

나주 혁신도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인구는 3만3525명으로, 전체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15.7% 비중을 차지했다.

나주 혁신도시 주민의 평균 연령은 32.6세로 집계됐다. 10개 도시 평균 연령(33.2세) 보다 1세 가량 낮았다.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는 전북(30.9세)이었고 충북(31.1세), 경남

(32세), 경북(32.2세), 광주·전남(32.6세), 강원(33.9세), 울산(34세), 부산(34.1세), 제주(35.3세), 대구(36세)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나주 혁신도시에는 30~40대가 41.7%를 차지했다. 10개 혁신도시도 평균적으로 30~40대가 40% 넘는 비중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30대가 739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6588명), 9세 이하(5882명), 20대(3973명), 만 10~19세(3922명), 만 50~59세(3197명), 만 60~69세(1704명), 만 70세 이상(8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공동주택 수는 1만4156호로, 계획 대비 79%의 조성률을 보였다. 대구, 울산, 부산, 제주는 이미 공동주택 조성을 계획 대비 100% 달성했고, 전북(94.7%)과 경북(91.7%)은 90%대 조성률을 나타냈다.

나주 혁신도시는 강원(74.5%), 충북(77.5%)에 이어 전국 10개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조성률이 낮았다. 나주 혁신도시는 조성 당시 10개의 학교(초 5곳·중 3곳·고 2곳)를 세우기로 계획했는데 올해까지 9개의 학교가 문을 연

■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황
(6월 말 기준, 단위:개·명)

지역	편의시설 수	주민등록인구
부산	2542	7498
광주·전남	930	3만3525
강원	685	2만9250
전북	684	2만6784
충북	530	2만6728
경북	503	2만2215
경남	487	2만5522
대구	468	1만8276
울산	277	1만9333
제주	19	4686

(자료:국토교통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까지 초등학교 1곳이 더 조성되면서 계획한 학교 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공립 3곳, 민간 37곳, 직장 8곳 등 총 48개의 어린이집이 들어섰다. 이는 계획했던 민간 어린이집 1곳을 미달한 수치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부산(25곳 중 22곳 완료)과 대구(21곳 중 19곳), 나주 등 3개 도시다.

국토부 측은 "민간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은 민간사업자의 인·허가 접수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주 혁신도시는 학교와 어린이집 계획을 다 채우지는 못했으나 학원 수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이곳에 들어선 학원은 128개로, 충북(57개), 대구(40개), 제주(1개) 등 3개 도시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 외 경남(122개), 부산(101개), 강원(89개), 전북(78개), 경북(70개), 울산(62개) 순으로 학원이 많았다.

한편 주민등록인구가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나주 혁신도시에는 마트·편의점·병원 등 편의시설이 930개 조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시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2542개)으로, 주민등록인구(7498명)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편의시설 수는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편의시설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640곳, 마트 및 편의점 64곳, 병(의)원 32곳, 은행 28곳, 문화시설 27곳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제주가 81.5%로 가장 높았고, 부산(77.5%), 전북(73.8%), 광주·전남(68.8%) 등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46.9%), 강원(60.5%)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5.3%로 2017년 말 대비 7.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정부대전청사 이전 5년 뒤 이주율(62.1%)보다는 높고 10년 뒤 이주율(65.8%)보다는 약간 낮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전남 23개 특성화고에 인턴십 운영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도

한전KPS는 에너지 분야 지역인력 양성을 위해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범년 한전KPS 사장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및 에너지 분야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전남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교류·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전KPS와 전남교육청은 ▲특성화고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특성화고 대상 'KPS-패러데이 스쿨'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 등을 서로 협력하게 된다. 한전KPS는 이를 계기로 전남지역 23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계·전기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운영해왔던 'KPS-패러데이 스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학생 및 교사과정을 개발, 전남지역 특성화고에 최적화된 인재육성 산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한전KPS의 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준비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 기반을 조성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나선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 장보기·식사투어 등 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사는 최근 나주 분사에서 김인식 사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역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활동과 관련 사업을 협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농어촌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9개 지역본부와 93개 지사, 8개 사업단으로 구성된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

장 장보기 ▲전통시장 식사투어 ▲사회공헌 활동 ▲시장 이용객에 마스크 나눠주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농업분야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직원 성과급 중 일부인 10억원을 지역사랑 상품권과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노동조합 활동비를 절감해 3억원 상당 지역농산물 상품권을 구매했다.

김인식 사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 협약체결이 농어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발전사업용 설비정보 집계 전력거래소, 통계 책자 발간

전력거래소는 18일 최신 발전사업용 설비정보를 총 집제한 '2019년도 발전설비현황' 통계 책자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발전설비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제 388003호)는 1981년부터 발간돼 올해 통권 40호를 맞았다.

이 책자에는 발전원별 설비용량, 연도별 발전설비 변동추이, 발전설비 세부내역 등 발전설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사업용 발전설비 용량은 총 125GW, 전체 발전기 대수는 총 6만1603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설비용량은 5%, 발전기 대수는 55%가 증가한 수치이다. 태양광 발전기는 전체 증가분 2만1775대 가운데 99.8%(2만1731대) 비중을 차지하며 발전기 급증을 이끌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컬푸드 우수성 우리가 알러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지역 직거래 농산물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로컬프렌즈' 4기 발대식을 열었다.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전국 각지 청년 9개팀 총 34명은 오는 11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로컬푸드를 알릴 예정이다. (aT 제공)

이오석 한전KDN 상임감사 '핸드 인 핸드' 캠페인 동참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한전KDN이 이들을 돕기 위한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전KDN은 이오석(사진) 한전KDN 상임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고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시작한 '핸드 인 핸드'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SNS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응원 문구를 알리는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상임감사는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의 지명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최향동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와 문태동 한전KPS 상임감사를 추천했다. 한전KDN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를 시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